

Daniel: 7: Sermon Notes

Title: “Daniel explains the dream (part 1)“

Scripture: Daniel 2:24-35

Date preached: July 21st 2024

Scripture: Daniel 2:24-35

24 Therefore Daniel went to Arioch, whom the king had appointed to destroy the wise *men* of Babylon. He went and said thus to him: “Do not destroy the wise *men* of Babylon; take me before the king, and I will tell the king the interpretation.”

25 Then Arioch quickly brought Daniel before the king, and said thus to him, “I have found a man of the captives of Judah, who will make known to the king the interpretation.”

26 The king answered and said to Daniel, whose name *was* Belteshazzar, “Are you able to make known to me the dream which I have seen, and its interpretation?”

27 Daniel answered in the presence of the king, and said, “The secret which the king has demanded, the wise *men*, the astrologers, the magicians, and the soothsayers cannot declare to the king. 28 But there is a God in heaven who reveals secrets, and He has made known to King Nebuchadnezzar what will be in the latter days. Your dream, and the visions of your head upon your bed, were these: 29 As for you, O king, thoughts came *to your mind while* on your bed, *about* what would come to pass after this; and He who reveals secrets has made known to you what will be. 30 But as for me, this secret has not been revealed to me because I have more wisdom than anyone living, but for *our* sakes who make known the interpretation to the king, and that you may know the thoughts of your heart.

31 “You, O king, were watching; and behold, a great image! This great image, whose splendor *was* excellent, stood before you; and its form *was* awesome. 32 This image’s head *was* of fine gold, its chest and arms of silver, its belly and thighs of bronze, 33 its legs of iron, its feet partly of iron and partly of clay. 34 You watched while a stone was cut out without hands, which struck the image on its feet of iron and clay, and broke them in pieces. 35 Then the iron, the clay, the bronze, the silver, and the gold were crushed together, and became like chaff from the summer threshing floors; the wind carried them away so that no trace of them was found. And the stone that struck the image became a great mountain and filled the whole earth.

24 그러고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박사들을 처형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아리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박사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꿈을 왕에게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25 그러자 아리옥은 즉시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왕 앞에 가서 “제가 유다 포로 가운데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하였다.

26 그때 왕이 벨트사살이라는 다니엘에게 “내가 꿈에 본 것을 네가 말하고 해몽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다.

27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어떤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도 대왕께서 물으신 신비스러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28 그러나 그 비밀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왕의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 대왕께서 잠자리에 누워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30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대왕께 그 꿈의 뜻을 알려서 마음에 생각하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1 “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사람 모양의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크고 번쩍번쩍 광채가 나며 그 모양이 무섭게 생겼는데 32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33 다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일부분이 철이며 일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4 대왕께서 그 신상을 보고 계시실 때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신에서 큰 돌 하나가 날아와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숴 버렸습니다. 35 그러자 철과 진흙

과 늦과 은과 금이 일시에 다 부서져서 여름철 티작 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조차 없어졌으며 그 신상을 친 돌은 하나의 큰 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Review

Before we consider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briefly recap where we are in chapter 2. It's a lengthy chapter with lots going on. However we can succinctly summarise the whole of chapter 2 in four "P's."

The chapter begins with Daniel in PERIL.

It then describes Daniel's PRAYER for God's deliverance.

Once the prayer is answered Daniel PRAISES God.

The final "P" is the one we will be considering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it is PROPHECY.

So peril, prayer, praise and prophecy. That provides a nice structure to the chapter. Let's review what we've looked at so far.

As chapter 2 begins we find ourselves in the second year of the reign of king Nebuchadnezzar. This places us in the year 603 BC. It was in this year that the king began to be disturbed by a troubling dream. It appears as if this dream recurred night after night. It left the king greatly perplexed and puzzled. He suspected that this dream contained an important message about the future.

Therefore he called together his wise men and advisors. These experts in the occult claimed to have the power and ability to contact the spirit world and make predictions about the future.

Nebuchadnezzar hoped that they could interpret his dream and still his troubled mind. However in order to do this they would need to work harder than usual. It seemed that the usual procedure was that the king would describe his dream, and then the "wise men" would consult their dream dictionaries and furnish him with an explanation. The king suspected that prior to this they had been lying to him and just telling him what he wanted to hear. Therefore on this occasion they needed to tell him what he had dreamed, and then provide an explanation. If they could not do this they would be chopped into pieces!

The wise men thought this was grossly unfair. It was an impossible task. No one, they rightly stated expect for God (a divine being) has the power to see inside a man's brain and determine what he had dreamed.

When it becomes clear that the wise men are simply stalling for time the king's patience snaps. He issues a decree that all the wise men be rounded up and killed. This decree included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Daniel and his friends are quite surprised when there is a loud knock at the door. Standing there is Arioch, the chief executioner. He tells them that he is there to arrest and execute them. That's the kind of news certain to put a dampener on your evening. Fortunately Daniel keeps his cool and does not panic. He asks why the king is so angry that he has passed such an extreme order. Arioch who clearly had some respect and admiration for Daniel tells him the full story. What is Daniel to do? How can this terrible situation be resolved? What he decides to do is go and see the king. He asks Nebuchadnezzar for a stay of execution. He needs a little time to seek God, and then he will provide the king with an interpretation. The king agrees to his request. Daniel goes back home to tell his friends. Their fate now rests entirely in God's hands. If He provides an interpretation they will live, if not they will die. Therefore the only course of action is for them to come together to pray and implore God for His mercy.

Later that night Daniel receives a vision from God revealing the secret of the dream and what it all means. We can only imagine the great joy Daniel felt at this moment. It is beautifully captured in the psalm of thanksgiving that Daniel uses to praise and worship God. Daniel lifts up the mighty

name of God. He acknowledges that He is the only source of all that is true and wise. He confesses that God is sovereign over all things. King and rulers are given the opportunity and the time to rule and reign, but this is ultimately determined by God. He affirms that nothing is hidden from God. Even things hidden in deep dark places are not a secret to Him. Finally he thanks God for answering their prayers. It was God who revealed this secret to him.

Today we will see what happens when Daniel goes to the palace to meet with king Nebuchadnezzar. I have broken this long section into two parts. We will look today at part one. This covers Daniel meeting the king and revealing his dream to him.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part two in which the dream's interpretation is revealed to the king.

오늘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2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 장은 아주 길고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2 장의 전체 내용을 네 가지 "P"로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위험 PERIL 에 처한 다니엘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 PRAYER 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 PRAISE 합니다.

마지막 "P"는 예언 PROPHECY 인데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위험 기도, 찬양과 예언이 있습니다. 이는 훌륭한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 장은 느부갓네살 왕 통치 2 년에 시작합니다. 이는 기원전 603 년입니다. 이 때 왕은 괴로운 꿈을 꾸고 불안해 합니다. 이 꿈이 밤마다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 왕은 크게 당황해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는 이 꿈이 미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자들과 조연자들을 불렀습니다. 이들 신비술 전문가들은 영의 세계와 접촉하여 미래를 예측할 힘과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그의 꿈을 해석하고 그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그들은 평소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왕이 자신의 꿈을 말한 다음 “현자들” 이 꿈에 관한 사적을 참고하여 왕에게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왕은 이전에 그들이 거짓말로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왕이 꾸는 꿈을 말하고 해몽도 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은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현자들은 이것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의 머릿속을 보고 꾸는 꿈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자들이 단순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분명해지자 왕의 인내심이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그는 모든 현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법령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매우 놀랐습니다. 집행관인 아리옥이 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저녁 시간을 망칠 소식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다니엘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명령을 내릴 정도로 화가 났는지 묻습니다. 다니엘에 대해 어느 정도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듯 아리옥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는 왕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처형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왕에게 해몽을 할 것입니다. 왕은 그의 요청에 동의합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시면 그들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꿈과 그것의 의미를 밝혀 주는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순간 느꼈을 커다란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기록한 감사의 사편에는 이 내용

이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참되고 모든 자혜의 유일한 근원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왕과 통치자들이 다 스릴 기도와 그들의 통치 기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깊고 어두운 곳에 꿩 숨겨진 것조차도 그분께는 비밀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에게 이 비밀을 알려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러 왕궁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이 왕을 만나고 그의 꿈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음 주에는 왕에게 꿈의 해석을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4 Therefore Daniel went to Arioch, whom the king had appointed to destroy the wise men of Babylon. He went and said thus to him: “Do not destroy the wise men of Babylon; take me before the king, and I will tell the king the interpretation.”

We pick up the account here on the morning after Daniel was given the vision by God. The vision revealed the secret of Nebuchadnezzar's dream and provided an interpretation. Daniel will be able to give this information to the king. This will sate his desire to know what this strange recurring dream meant.

Daniel seeks out the chief executioner Arioch. He remember was the man tasked by the king of arresting and then executing Babylon's wise men. Daniel had been able to persuade him to tell him why the king was so angry. Armed with this information Daniel had sought an audience with the king and asked for some time.

I want you to note carefully what Daniel says first when he meets with Arioch. Bear in mind that he and his friends are facing the death penalty. We might expect that saving himself and his friends might be Daniel's overriding priority. But that is not the case. Again we get a glimpse of the wise, caring and compassionate nature of Daniel. He was not so occupied with his own self importance that he did not think of others. How often we fall into the trap of being selfish and self centred. Of thinking that our issues and concerns should take priority. Daniel here gives us a true biblical lesson about putting the needs of others before our own.

The first things he asks is that Arioch show mercy to the other wise men of Babylon. He asks that they be spared execution. Now from Daniel's perspective these men were wicked pagans. They were men caught up in evil practices who had no respect for the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The perverse and immoral things they got up to would make you shudder.

Why would Daniel care about such people,? Why would he want to save them?

Wouldn't it be better to have less of these evil doers around?

Before I answer these questions let's insert ourselves into this equation. Let's put ourselves in the position of requiring salvation. Why would God want to save filthy wicked sinners like you and me? Weren't we once immoral and perverse like these Babylonian wise men? It a good question, one you may well have asked yourself. I hope you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it's not because you are worthy or deserving. You are not. I also hope you are not so arrogant as to think its because you can provide a service that God needs. God does not need you. The answer as to why God chose to save a wretch like you is as follows. God chose to save sinners for His glory, and also because He is love. He loves what He created and desires to redeem it.

Anyway back to Daniel. Why was he concerned for the psychics and mystics of Babylon? The answer is simple. He was a loyal follower of God. He loved the Lord and sought to live a live of joyful and willing obedience. God commands that we not only love our friends but also our enemies (Matt 5:43-48). So Daniel was just obeying God.

Daniel recognised that we are to love those who hate, persecute or abuse us because they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They, for all their sinful failings are special and precious to Him.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y ought to be special and precious to us. Also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we do not know how God may use us and our acts if kindness and consideration in this person's life. God may in his use our words or acts as a turning point in this person's life. It's amazing how many people's lives have been transformed by friendly interactions with believers.

My absolute favourite transformation story concerns the former New York gang member Nicky Cruz. His life was turned away from extreme violence and drugs due to the intervention of the evangelist David Wilkerson in the late 1960's. No doubt many other Christians wrote off Cruz as a lost cause. They implored Wilkerson not to waste his time trying to reach him. Wilkerson disagreed, he saw Cruz as someone special. Someone made in God's image, someone worth saving. Daniel felt the same way about the wise men.

Perhaps Daniel hoped that through his supernatural revealing of the secret some of the wise men might come to Yahweh. They might recognise where the real truth and power lay. Therefore Daniel asks that they might be spared in order that God may work upon them.

He then asks that Arioch take him to the king at which time he will provide the interpretation.

Let us see what happens next.

24 그러고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박사들을 처형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아리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박사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꿈을 왕에게 해몽해 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은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 환상은 느부갓네살이 꾸는 꿈의 비밀과 해석을 알려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그것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왕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집행관 아리옥을 찾아가습니다. 그는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임무를 준 사람인 거 기억 하시죠? 다니엘은 그를 설득했고 그는 왕이 왜 그토록 화를 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 다니엘은 왕을 만나서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는 지 주목하세요. 그와 그의 친구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친구들을 구하는 것이 다니엘의 최우선 과제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롭고 착하고 재래로운 성품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뜻에 빠집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와 관심 사항만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성경적 교훈을 줍니다.

그가 아리옥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처형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다니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사악한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하고 부도덕한 행위들에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그런 사람들을 걱정할까요? 왜 그들을 구하려고 할까요?

이런 사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없다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이 방정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 같은 부패하고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도 한때 이 바벨론의 박사들처럼 부도덕하고 패역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만한 정당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봉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교만하게 □□□□□□ □□□□.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바침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것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는 바벨론의 심령술사와 신비술사들을 염려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기쁘게 가까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마 5:43-48).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함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께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특별하고 소중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에 친절과 배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과의 우호적인 교류를 통해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변화의 이야기는 전 뉴욕 갠단 멤버인 니키 크루즈(Nicky Cruz)에 관한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전도자 데이비드 윌커슨(David Wilkerson)이 크루즈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그는 극심한 폭력과 마약에서 멀어졌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은 크루즈를 구제불능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윌커슨에게 그에게 다가가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윌커슨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 다니엘도 현지들에 대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자신이 초자연적으로 꿈의 비밀을 밝히면 몇몇 자혜자들이 여호와의 믿게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진실과 권능이 어디서 오는지 인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리옥에게 그들을 살려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리옥에게 왕의 꿈을 해석해 줄테니 자신을 왕에게 데려가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25 Then Arioch quickly brought Daniel before the king, and said thus to him, “I have found a man of the captives of Judah, who will make known to the king the interpretation.” 26 The king answered and said to Daniel, whose name was Belteshazzar, “Are you able to make known to me the dream which I have seen, and its interpretation?”

Arioch is very pleased by this news. It provided him with an opportunity. He could use the situation to his advantage. He would receive some of the credit for “discovering” someone who could interpret the king's dream. We know of course from last week's account that Daniel had already gone to the king and asked for time to interpret the dream. It seems unlikely that Arioch would not know this. He had after all told Daniel why the wise men were to be executed. He had also not carried out the order to kill them at that time.

Still he announces to the king that he has “found” someone, a slave from Judah who can help the king. Now we might look at what Arioch did and think he was little more than a self centred schemer.

That he was trying to do nothing more than advance his career and inch on up the greasy pole.

This may be true, but, w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he demonstrated great faith in Daniel's ability. This whole thing could have backfired terribly. If Daniel had not been able to solve the mystery and reveal the secret of the dream the king would have been very angry. The flames of his wrath would have extended beyond Daniel and probably engulfed Arioch. So although Arioch is a pagan he puts great faith in Daniel, and more importantly in the God of Israel.

Daniel is brought in to stand before the king. We see here that both his Hebrew and Babylonian names are given. Daniel as you may recall means “God is my judge,” and Belteshazzar means “Bel lord/Marduk protects his life.” Belteshazzar is his official court name and clearly the one they will use in official Babylonian circles. The king's question to Daniel is interesting. Look at how it's phrased,

“Are you able to make known to me the dream which I have seen, and its interpretation?”

This notion of ability, or whether someone is able to do something is a recurring theme throughout the book of Daniel. The king wants to know if Daniel has the skills or abilities to reveal the secret.

The truth is that Daniel is only able because there is a God who is able.

There an important lesson for us all to learn from this. We are only able to have successes in life and accomplish great things because God wills and enables it. Daniel knew this and wanted God to receive all of the credit. He didn't want any of the glory of what was about to happen to reflect upon Him. How contrary to the way many leaders and “Christian celebrities” act today. They seek to redirect the radiance and glory that belongs to God, and have it shine upon themselves. Let us ensure that we do not fall into this trap.

Let us find out how Daniel answers this question.

25 그러자 아리옥은 즉시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왕 앞에 가서 “제가 유다 포로 가운데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하였다. 26 그때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에게 “내가 꿈에 본 것을 네가 말하고 해몽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다.

아리옥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 주의 기록에 다니엘이 이미 왕에게 가서 그 꿈을 해석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리옥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현지들이 처형되는 이유를 다니엘에게 말한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는 당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라는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왕을 도울 수 있는 유다 포로를 “찾았다”고 왕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아리옥이 행한 일을 보고 그가 자 기증심적인 합작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출세와 성공만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가 다니엘의 능력을 크게 신뢰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끔찍한 역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그 비밀을 풀지 못하고 해몽을 하지 못한다면 왕은 크게 진노할 것입니다. 그의 진노의 불길이 다니엘 뿐만 아니라 아리옥까지 삼킬 것입니다. 아리옥은 이교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믿었고, 더 중요하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그의 유대인 이름과 바벨론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아사다사피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라는 뜻이고 벨드사살은 “벨/마르дук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벨드사살은 궁에서 부르는 그의 공식 이름이고 바빌론의 공식 석상에서 사용된 이름이 분명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한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내가 꿈에 본 것을 네가 말하고 해몽할 수 있겠느냐?”

능력, 즉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개념은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과 “기독교 유명인사들”의 행동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빛과 영광의 방향을 바꿔 자신들에게 비추도록 합니다. 이런 뜻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니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7 Daniel answered in the presence of the king, and said, “The secret which the king has demanded, the wise *men*, the astrologers, the magicians, and the soothsayers cannot declare to the king. 28 But there is a God in heaven who reveals secrets, and He has made known to King Nebuchadnezzar what will be in the latter days. Your dream, and the visions of your head upon your bed, were these:

Aren't you impressed by Daniel's bold and concise answer. He first reminds the king that all the highly trained and expert occult practitioners were unable to decipher this secret. They brought to

bear all of their hidden and mysterious knowledge and still came up with nothing. There was a good reason for this and one that inadvertently they admitted themselves. The reason is that it fell outside the realm of their expertise.

To see someone's dream is something that only God can do. Even with the marvels of modern science we cannot know what some has dreamt. Since these men did not enjoy any kind of relationship with Yahweh or the truth He represents how could they possibly hope to know the king's dream.

It's the equivalent of someone who is not indwelt by the Holy Spirit trying to understand or explain scripture. If you have a question or a query about something in the bible who do you look to for help? Obviously you look to fellow believers; your pastor, elders at church or other mature believers. You look to people you know have trusted in the Lord Jesus Christ for their salvation. People in whom the Holy spirit now indwells. You don't look for wisdom and insight on God's Word from unbelievers. Even professors and bible scholars with decades of experience will be of no help if they are not guided and counselled by the Holy Spirit.

So Daniel affirms that these wise men are effectively useless. He actually introduces a new term here for some of the wise men. He refers to them as “astrologers” (*gazerim*).

These were men trained to obtain information by studying the stars. Such people still proliferate and spread their garbage today. Have nothing to do with their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These Babylonian stargazers were unable to uncover this mystery. However, Daniel goes on to tell the king that there is a God whose abode is in heaven (among the stars) who does know these secrets. They are not hidden from Him. Daniel is very cleverly drawing the king's attention away from fallen and wicked human beings and directing it towards the divine. He is in effect saying to the king, take your eyes away from these so called wise men and look towards the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It is He who is revealing this secret.

Nebuchadnezzar was a relatively new king. He had only been in office for two years. He possessed grave concerns about the future of his kingdom. This was only natural. He was yet to establish his complete dominance and authority. The dream as we shall discover fully next time was God's answer to his concerns.

27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어떤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기도 대왕께서 물으신 신비스러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28 그러나 그 비밀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왕의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대답하고 간결한 답변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는 먼저 고도로 훈련되고 숙련된 마법 수행자들 모두가 이 비밀을 해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왕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고 신비한 지식을 모두 가져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무심코 그들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전문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꿈을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경이로운 현대 과학으로도 사람들이 꾸는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들은 여호와 그리고 그분의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왕의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시나요? 동료 신자들이나 당신의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들, 혹은 다른 성숙한 신자들에게 질문을 구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 즉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당신은 불신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교수나 성경학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와 권면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현자들이 사실상 쓸모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일부 현자들을 가리키는 새로운 용어를 소개합니다. 그는 그들을 “점성술사(astrologers)”(*gazerim*)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별자리를 연구하여 정보를 얻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번성하고 쓰러기를 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 바빌론의 별 관찰자들은 비밀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하늘 별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비밀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현명하게 왕의 관심을 타락하고 악한 인간으로 부터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왕에게 소위 현자들이라고 불리는 아들에게서 눈을 떼고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밝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비교적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겨우 2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의 미래에 대해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아직 완전한 지배력과 권위를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히 들여다 볼 꿈은 그의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Daniel tells the king that God is revealing through the dream what will be in the “**latter days.**” This is a very interesting and important biblical phrase. We will briefly unpack this phrase in more detail in a moment. Simply put, Daniel means that Nebuchadnezzar's dream predicts future events that will occur from Nebuchadnezzar's present reign to an undefined point of time in the future.

But before moving on let's take a moment to study the phrase “**latter days.**” Please note that at times you may also see the similar terms “last days,” “last times.” These phrases are used throughout the Hebrew Scriptures to refer to dramatic changes in world history and human experience. In fact the expression “latter days” occurs 14 times in the Old Testament and always denotes the closing period of the future so far as it falls within the range of view of the writer using it.

As Albert Barnes writes in his commentary.

This phrase often has special reference to the times of the Messiah, as the last dispensation of things on the earth, or as that under which the affairs of the world will be wound up.

(Albert Barnes)

So when you see this expression in most cases it is pointing to either the first or second appearance of the Messiah. The context determines which appearance is in view.

However caution is needed. It is a phrase that can sometimes lead bible readers into confusion. The confusion stems from the fact that it is not always clear whether "the latter days" means a somewhat later period than that of the writer, or the latest times of all (the very last days).

This is why we must always read things carefully in context. Let me highlight what I mean.

The phrase first occurs in Genesis chapter 49:1 where we read,

And Jacob called his sons and said, “Gather together, that I may tell you what shall befall you in the last days.”

Jacob then proceeds to prophesy about each of his 12 sons. So the question we must ask is as follows, What did Jacob mean by "the last days?" Does he mean a period of future time in the lives of his sons, or is he looking ahead to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Clearly when we consider the context we can only conclude that in the main he is describing what would happen to his children and their descendants. However, when we read what he says about Judah he points to the future and final king of Israel, the messiah (Gen 49:10).

The point I am making is this, from the first mention of "the last days" we can clearly see it does not always or exclusively refer to the end of the world. This means we should never take for granted that "the last days" or "the latter days" are talking about the latter days of the world as we know it.

So what about here in Daniel? In the context of Daniel 2, 'the latter days' include all the visions which Nebuchadnezzar received. It covers a range of time stretching from 600 BC to the second coming of Christ to the earth.

Let us read on.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앞으로 latter days**” 있을 일을 계시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성경 문구입니다. 잠시 후에 이 문구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니엘은 그 꿈이 느부갓네살의 현재 통치부터 미래의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 시점까지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예측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latter days**”라는 문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때때로 “**마지막 날 last days**”, “**마지막 때 last times**”라는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표현들은 유대 성경 전체에서 세계 역사와 인간 삶에서의 극적인 변화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실 “**latter days**”라는 표현은 구약에 14 번 나오며, 이 표현을 사용하는 작가의 관점에서 항상 미래의 마지막 시기를 의미합니다.

Albert Barnes 가 그의 논평에서 기록하길

이 문구는 종종 자상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로서 또는 세상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인 메시아 시대를 특별히 언급한다 (앨버트 번스)

따라서 이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메시아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출현을 가리킵니다. 문맥에 따라 첫 번째 출현인지 아니면 재림인 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이 문구는 성경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latter days**”가 성경 저자가 살던 시대로부터 미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의 마지막 때(종말)를 의미하는지가 항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문맥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는 창세기 49 장 1 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굽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라 말세 the last days 에 너희가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

그런 다음 아굽은 자신의 열 두 아들 각각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아굽이 여기서 말한 “**말세 the last days**”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들들의 삶에서 미래의 시기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메시아의 출현을 가리킵니까?

문맥을 고려해 보면 아굽이 주로 자기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묘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 관해 말하는 부분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마지막 왕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창 49:10).

제 요점은 “**마지막 날**”이란 문구가 첫 번째로 사용된 예에서 보듯이 그 문구가 항상 또는 절대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the last days**”이나 “**the latter days**”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2 장의 맥락에서 ‘**앞으로 the latter days**’는 느부갓네살이 받은 모든 환상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기원전 600 년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9 As for you, O king, thoughts came to your mind while on your bed, about what would come to pass after this; and He who reveals secrets has made known to you what will be. 30 But as for me, this secret has not been revealed to me because I have more wisdom than anyone living, but for our sakes who make known the interpretation to the king, and that you may know the thoughts of your heart.

Nebuchadnezzar had gained the throne of Babylon and with it great power over Southwest Asia. Ancient rulers maintained control by being seen as strong ruthless men who held absolute sway over their subjects. But as I mentioned before Nebuchadnezzar was a new king. He was concerned about what the future held for him and his empire.

So Daniel begins by explaining to the king that it was these kinds of thoughts that had been running through his mind as he lay down to sleep. He desired to know about the future and God was revealing to him what lay ahead in the form of a dream.

As you may remember we spoke before about the mistrust Nebuchadnezzar had for his wise and learned men. He suspected that they had lied to him in the past. This was why given the obvious importance of this troubling recurring dream he asked that they tell him the dream before giving him the interpretation. Under this intense pressure they had been forced to admit that this ability lay beyond them. This was because they had no connection or contact with the “divine being” who could do such a thing. So Daniel assures the king that it was the one true God who was responsible for this revelation. It was not made up as in the case of the wise men. Nor did it rely on the wit or imagination of Daniel. Daniel is at pains to point out that he is no greater in wisdom or insight than any other man. Now we may question this. We know that he was ten times wiser than all the other supposed wise men in Babylon. But the point here is not how smart or wise Daniel is. He does not want any of the glory for revealing this secret to fall on him. He wants God, and God alone to get the deserved and rightful glory. Let us continue.

29 대왕께서 잠자리에 누워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30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대왕께 그 꿈의 뜻을 알려서 마음에 생각하시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 되었고 서남아시아에 대한 큰 권세를 얻었습니다. 고대 통치자들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 강력하고 무자비하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통제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와 그의 제국의 미래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가 마음 속에 이런 장래의 일들을 생각했다고 왕에게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왕은 미래에 대해 알고 싶었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갖고 있던 불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과거에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괴롭고 반복되는 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해몽을 하기 전에 그 꿈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압력 하에서 현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 밖의 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하게 그런 능력이 있는 “신적인 존재”와 어떠한 관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계시를 주신 분은 유일하신 참하나님이시라고 왕에게 보증합니다. 그것은 현자들이 한 것 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재치나 상상력에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와 통찰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애써 자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다른 모든 지혜자보다 10 배나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니엘이 얼마나 영리하고 현명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비밀을 밝힘으로써 얻어질 그 어떤 영광도 자기에게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께 합당하고 정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합시다.

31 “You, O king, were watching; and behold, a great image! This great image, whose splendor was excellent, stood before you; and its form was awesome.

We now move into the section where Daniel explains the elements that made up king Nebuchadnezzar's dream. The king's dream began with the appearance of a huge, powerful and extremely bright image. The image was in the form of a gigantic statue most likely in the form of a human man. This image was so large, brilliant and splendid that it had the effect of creating “terror.” This is how the word *dechal* is translated in the King James bible. So I have a slight issue with the word “awesome” as it is translated here in the New King James bible. The problem stems from how we tend to use the word “awesome” today. Most commonly we use it to describe an extraordinarily good or memorable experience. How was your trip to Italy? It was awesome!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new cell phone? It's awesome! It means that we rather miss the real impact this large statue had upon Nebuchadnezzar.

He didn't think it was especially good or impressive, it induced terror or awe within him.

We know this because it plagued him both day and night. He could not shake the images from his mind. It's interesting to think that this tyrannical and cruel ancient king who ruled with an iron fist over millions of people was petrified by an image in a dream. Let us learn more about this image.

31 “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사람 모양의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ㅁㅁ ㅁㅁ 반짝반짝 광채가 나며 그 모양이 무섭게 ㅁㅁㅁㅁ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왕의 꿈은 거대하고 강력하며 매우 밝은 신상이 등장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신상은 사람의 모양을 가진 거대한 조각상 형태였습니다. 이 형상은 아주 ㅁㅁ, 화려하게 광채가 나서 '공포terror'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데칼 *dechal* 이라는 단어를 ㅁㅁㅁㅁ 성경에서는 terror 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뉴킹제임스 성경에서는 “awesome”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사용하는 "굉장하다awesome"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awesome 이란 단어는 아주 대단하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이탈리아 여행은 어땠나요? 정말 굉장했어요! It was awesome! 새로운 휴대폰이 어때요? 정말 대단해요! It's awesome! 그래서 awesome 이란 단어는 이 거대한 형상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었을 충격을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왕은 그 신상이 대단하거나 인상적이라고 ㅁㅁㅁㅁ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에서 그 형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철권으로 통치했던 이 포악하고 잔인한 고대 왕이 꿈에서 본 형상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이 신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32 This image's head was of fine gold, its chest and arms of silver, its belly and thighs of bronze, 33 its legs of iron, its feet partly of iron and partly of clay.

As I mentioned in my introduction we are only going to deal with the recounting of the dream today. I'm sure that you have read ahead and know what the various elements convey, but if you don't know then you'll have to wait until next week for the explanation.

Daniel describes the head, torso, midsection, legs, and feet by noting the materials from which they were made. He begins at the top of the statue. The head was made out of fine gold. This no doubt contributed to the dazzling splendour of the statue. The statue's torso, its arms and legs were made out of silver. It's belly and thighs of bronze. It's legs out of iron and its feet were a mix of iron and clay.

Without moving on to a full explanation of what all this means let me make five observations.

- Firstly we note that it's an odd mix of materials. Sometimes artists use different materials in order to create a particular effect. But its far more common and aesthetically pleasing to create a statue from one single substance be it gold, marble, wood or stone. Clearly there is a deeper message being conveyed here.
- Secondly we are intended to notice a lessening in value and beauty from top to bottom. Gold is the most precious, beautiful and costly metal. The head of the statue is made out of gold. Silver is also a precious metal, but not as desirable, or as costly as gold. The same lessening effect applies the further down the image we descend. The feet are partly made of clay which we can dig up out of the ground for free!
- Thirdly the head is the only member of the body made of only one substance. Gold is pure with nothing added. All the other parts have more than one substance, with the exception of the silver arms. The upper torso was silver at the top, but became bronze lower down. The same mixing of substances was also true of the legs and feet.
- Fourthly, the image was top-heavy. The weight is poorly distributed meaning that the structure lacks stability. We know that strength lies in the foundations. Here we see the opposite of this.
- Fifthly, the base of the statue is compromised. Can a base like this bear such a heavy load? Iron may, by itself be a very strong substance, but when it is mixed with brittle clay it becomes unreliable and potentially fragile. In fact these materials do not bond together meaning the whole structure could be compromised if the feet are damaged.

Let us continue and see what happened in the next part of the dream.

32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33 다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일부 분이 철이며 일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었고 꿈 속에 나온 다양한 요소가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머리, 흉부, 몸통, 다리, 발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를 설명합니다. 형상의 꼭대기부터 시작하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형상은 눈부시도록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형상의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의 다리는 철이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다 설명하지 않고 다섯 가지만 관찰해보겠습니다.

- 첫째, 그것은 재료들이 이상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예술가들은 특정 효과를 위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금, 대리석, 나무, 돌 등 하나의 재료로 조각상을 만드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미적으로도 좋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 둘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치와 아름다움이 감소합니다. 금은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값비싼 금속입니다. 조각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은 역시 귀금속이지만 금만큼 귀중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발의 일부는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진흙은 땅에서 공짜로 파낼 수 있습니다.
- 셋째, 유일하게 머리만 단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신체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금입니다. 은으로 된 팔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부분에는 하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몸통 윗부분은 은이지만 아래 부분은 청동이었습니다. 다리와 발에도 재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넷째, 형상의 윗부분이 더 무겁습니다. 무게 분산이 잘 되지 않아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이 형상은 그 반대입니다.
- 다섯째, 형상의 기반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반이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을까요? 철은 그 자체로는 매우 강한 물질이지만 부스러지기 쉬운 진흙과 혼합되면 지탱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철과 진흙은 서로 붙지 않으므로 발이 손상되면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꿈의 다음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4 You watched while a stone was cut out without hands, which struck the image on its feet of iron and clay, and broke them in pieces.

As the king stands in awe taking in the statue a stone comes flying through the air and strikes the feet of the image. What does it mean to say it was a stone cut out without human hands? Put simply it means that a human being did not dig or cut this stone out of the ground.

It had a supernatural origin. God himself cut out, and launched this stone.

The stone strikes the weakest or most vulnerable point of the statue, its feet of clay and iron.

I remember my university American football coach telling us about how to tackle and bring down much bigger and tougher opponents. He'd tell us to go for their legs. No matter how big you are in the upper body when your legs are chopped away you soon hit the ground. The stone has this effect upon the image. The feet are shattered. The fate of the statue is sealed. Nothing can stay standing when its foundations are destroyed. The stone has done its job. It does not simply defeat the statue it annihilates it.

Let us conclude our study today by looking at verse 35.

34 대왕께서 그 신상을 보고 계실 때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산에서 큰 돌 하나가 날아와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숴 버렸습니다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 shall not lift up sword against nation,
 Neither shall they learn war anymore.
 (Micah 4:1-3)

1. □□□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 갈 것이라
2. 곧 많은 야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아랍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라 하라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3.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야방 사람을 판결하시라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는 칼을 들고 서로 차지 아니하며 다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the interpretation of this dream. What does it all mean?
 Come along next time and find out.

다음 주에는 이 꿈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모두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에 꼭 오셔서 알아보세요.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that I have drawn from today's study.
 저는 오늘 공부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Having a heart for the lost

As I pointed out during the sermon Daniel did not want Arioch the chief executioner to kill the wise men. He asked that they be spared. What a kind and compassionate man Daniel must have been. Let us think for a moment about these men. These were wicked occult practitioners who rejected Yahweh and consorted with demons. We can only guess at how many people were hurt, suffered or perhaps killed by these people. Even today there is untold suffering around the world because people dabble in witchcraft and the occult. So it would have been quite understandable if Daniel had just kept quiet and let these men die. I'm sure he could even have justified to himself. Well, I'm just a slave, this is the king's decree, what can I do? But this is not what Daniel did. He utilised the influence he had through his good reputation to try and save these men. Daniel you see had a heart for the lost.

What about us? How do we feel about people who may have wronged or hurt us. Don't we secretly, and rather perversely delight in the knowledge that they will one day face God's wrath. Don't we pre-judge "wicked people" and decide they are not really worthy of hearing the gospel message. We decide that a particular person is so wicked that they don't deserve to hear that Jesus Christ came to earth and died for them. That if they confess of their sins and repent and then place their faith in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they can be saved. No, we say, I'll keep that news to myself. If we ever catch ourselves thinking like this we might remember Daniel. He had a heart for the lost and so should we.

1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마음에 두기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현자들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착하고 자애롭습니다. 잠시 이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여호외를 거부하고 악귀들과 한때가 되어 사악한 신비술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을까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마법과 신비술에 가담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없이 이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포로에 불과해, 이것은 왕의 명령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어?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좋은 평판을 통해 얻은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니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거라는 사실에 은밀히, 사악하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미리 정조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너무 사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다니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2 Being humble and acknowledge the source

Let's be honest and upfront. Daniel is a real biblical hero. As I mentioned back in my introduction to Daniel nothing negative is ever reported about him in the bible. He is portrayed as being bold, courageous, wise, compassionate, caring and most importantly committed to God. So there is much for us to admire and seek to emulate. Of course, we must be careful never to focus so much on other people in the bible that we lose sight of Christ. He must always and forever remain our chief focus and interest.

My point though is that Daniel perhaps could be excused for feeling proud of his efforts. We might not blame Daniel if he had stood back and admitted that he was a pretty good guy and that was why God had blessed him. This of course is not what we see. Despite his many glowing attributes Daniel always remained humble. He always acted to diminish his own efforts and ensure that it was God who received the glory. This was done in a real and genuine way, and not in the fake shows of humility we sometimes witness today. Daniel really wanted all the attention and glory to go to God. So there is much we can learn from Daniel. May we too seek to be humble. May we too learn to point people to God who is really the one who deserves all the glory. If God had blessed us with gifts and talents let us use them in a way that pleases him. And most of all, may we remain humble as we acknowledge God as the giver of all we have.

2 겸손함과 모든 것의 근원 인정하기

정직하고 솔직해집시다. 다니엘은 진정한 성경적 영웅입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개요에서 언급했듯이, 성경에는 다니엘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담대하고, 용감하고, 현명하고, 동정심 많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묘사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너무 집중하여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됩니다. 우리의 주요 초점과 관심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제 요점은 다니엘이 그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 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꽤 잘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거라고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다니엘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많은 빛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노력을 하찮게 여기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애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목격하는 가짜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관심과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겸손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법을 배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으로 축복해 주셨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